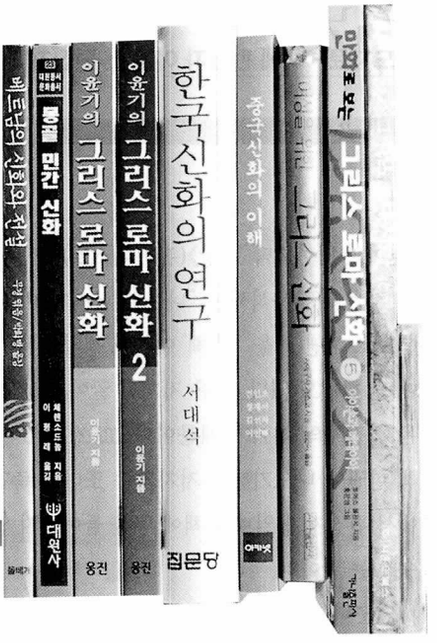
비(非)신화시대의 신화 읽기, '지식' 아닌 '지혜' 지향해야

신화 대중서가 얻은 것과 잃은 것

정혜경 | 서일대학 문예창작과 겸임교수

'신화 읽기'는 경직된 근대 과학이 제한해왔던 상상력의 물꼬를 트고, 삶의 원형을 되짚어 새로운 시대를 마련하려는 근원적인 관심에서 비롯한다. 최근 신화 열풍의 중심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자리하는데, 각각의 민족신화가 특유의 구체성을 지니듯 신화에 접근하는 관점 또한 다양해져야 한다. 특히 '신화 읽기'가 우리에게 풍요로운 행위가 되기 위해서 지금 왜 우리가 신화에 주목하는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



신화시대가 아닌 지금, 신화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최근의 신화 관련 서적은 종류만 해도 1백여종에 이르며 발행 부수도 지난해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윤기의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신화를 이해하는 12가지 열쇠》와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2: 사랑의 테마로 읽는 신화의 12가지 열쇠》(이상 웅진닷컴),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전9권)》(토마스 불핀치 글 · 홍은영 그림, 이광진, 가나출판사)를 들 수 있다. 이 책들은 각종 베스트 셀러 집계에서 1위 혹은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신화 읽기는 원형에 대한 관심에서 기원해

기존의 명작선이나 문고판 형태로 수록된 것 외에 이같은 신화서가 집중적으로 출판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을 전후해서다. '최첨단 디지털 시대' '고도의 정보화 사회'라는 21세기의 타이틀을 떠올릴 때 '신화 읽기' 붐은 문제적인 현상이다.

"비행기가 우주와 창공을 마음껏 날아보려는 신화적 사유의 소산이듯 인류의.문화와 문명은 인간이 원초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신화적 사유에 바탕한다"(《중국 신화의 이해》, 전인초 외, 아카넷)는 진술을 떠올리면 신화에 대한 관심이 문제적이긴 하되 지금 이 시대와 동떨어진 기이한 현상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넓게 볼 때 신화를 읽는 행위는 삶의 원형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시대를 마련하려는 근원적인 관심에서 비롯된다. 고대 신화를 살피는 것은 단지 당시 사람들의 삶을 유추해 보는 데서 끝나지 않는 것이다. 에로스(Eros)와 프시케(Psyche)의 만남과 이별이 "의심이 자리잡은 마음에는 사랑이 깃들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하듯, 독자는 신화적 인물로 형상화된 기표들 사이를 탐색하면서 삶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된다.

지금의 '신화 읽기'는 근대 과학의 경직된 인식이 제한해왔던 상상력의 물꼬를 트고 있다. 이윤기가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신화를 이해하는 12가지 열쇠》에서 신화의 상징적 의미를 찾아가는 길을 미로에 비유하고 이 미궁을 빠져나오게 하는 '아리아드네의 실타래'가 바로 독자의 상상력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과 닿아 있다. 또, 말 그대로 신들의 이야기인 신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행위는 이야기성 혹은 서사성을 확보한다. 파편화된 이미지들을 추슬러 시간성과 인과성으로 짜여진 이야기 위에 가져다놓을 때 이야기에 대한 욕망은 동시대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신화에 접근하는 다양한 관점 등장해

좀더 논의의 범위를 좁히고 구체화해보면 최근 출간되는 신화서들에서는 몇 가지 특징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먼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저자층이 다양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아직도 많은 책들이 토마스 불핀치의 저작을 옮기고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 이윤기, 미하엘 쾰마이어, 사에구사 가즈코 등의 작가가 집필한 책들이 당당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저자가 다양해졌다는 것은 신화에 접근하는 방법과 관점이 다양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상상력을 열쇠로 "창조적 신화 읽기"를 촉발하는 이윤기의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신화의 이야기성을 강조하는 미하엘 쾰마이어의 《그리스 신화: 문명의 내밀한 상징과 기호를 푸는 이야기 퍼즐》(유혜자, 현암사), 여성의 시각에서 신화를 재해석하려는 사에구사 가즈코의 《여성을 위한 그리스 신화》(한은미, 시아출판사) 등이 대표적인 예다. 신화가 상징으로 가득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다양한

읽기'의 가능성은 이미 신화 그 자체에 내재해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의 다양화라는 측면은 독자의 다양한 독서 행위를 암시한다. 독자는 일종의 잠재적인 저자다. 신화는 독자에게 능동적인 상상력을 통해 신화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실은 이 지점이 독자에게 균형감각을 요구하는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신화 속의 환상을 받아들일 때 상징을 거부하고 이야기의 표면만을 따라가거나 혹은 기우뚱한 공상을 좇아 상징의 세계를 너무 지나쳐버리는 것은 모두 현실 도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둘째, 신화 열풍의 중심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자리잡고 있다. 신화가 인간의 보편적인 사유를 조직한다는 점에서, 풍성한 스케일을 보여주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주로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각 민족에 따라 특유의 구체성을 지닌 신화가 존재한다는 점 또한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신화의 연구》(서대석, 집문당), 《중국 신화의 이해》, 《몽골민간신화》(체렌소드놈, 이평래, 대원사), 《다시 보는 일본 신화》(강종식, 부산대출판부), 《베트남의 신화와 전설》(무경, 박병희, 돌베개) 등 학술 연구의 차원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신화 읽기가 한편에서는 대중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최근 신화 서적들은 구성과 편집의 측면에서도 변화를 보인다. '세계 명화와 함께 하는' 이라는 부제를 달지 않은 책들의 경우에도 대개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티브로 한 명화들을 컬러 화보로 싣고 있다. 여기에서 독자는 흑백 사진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생생한 감동을 체험한다. 이런 기획은 이른바 영상시대라는 시대적 특성과 관련된 대중화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전달 매체의 다양화는 컬러화보에서 그치지 않고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나 《세계 명화와 함께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박현철, 푸른숲), 《드라마로 듣는 그리스 로마 신화》(장성호 외 녹음, 사운드 북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화나 그림이라는 시각적 언어와 녹음된 드라마의 형태인 청각적 언어를 총동원하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것 역시 영상시대의 독자들을 고려한 선택인 것이다.

신화 읽기에 대한 질문 끊임없이 던져야

그런데 '대중화' 라는 독자 중심적 편집은 또 하나의 방향을 파생시키고 있다. 책 제목에 붙은 "하룻밤에 읽는" "쉽게 풀어쓴" "한 눈에 보는" "한 권으로 읽는" "일목요연" "청소년이 꼭 읽어야 할" 등의 수식어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최근 신화서들은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독자층을 가리지 않고 신화를 지식이나 정보로 취급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그리스 로마 신화가 주로 문헌학적인 고증을 중심으로 학술적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극복하거나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런 구성은 독자에게 쉽게 정리된 신화 관련 지식을 정보로 빠르게 전환시킬 수 있도록 재촉한다. 신화가 지식이나 정보로 기능할 때 신화의 눈부신 상상력과 예리한 통찰력은 그 빛을 잃고 만다. 그렇게 된다면 신화는 처리되지 않는 또 한 무더기의 정보 더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신화가 지식이나 정보의 하나로 이해되고 신화를 읽는 행위가 현실 도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가 신화시대가 아니라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다. 신화시대 사람들에게 신화와 자신의 삶이 일치한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반면, 현대인들은 신화 읽기를 통해 자신의 삶과 신화를 연계시켜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이 비(非)신화시대에 신화를 읽는 행위가 지니는 난제다. '신화 읽기' 가 우리에게 풍요로운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다시 '지금 왜 우리가 신화에 주목하는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만 한다. ■

정혜경 교수는 고려대 국문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문학평론가로 활동하며 서일대학 문예창작과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다. 〈1960년대 소설의 서술 구조 연구〉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고, 평론집 《거울 속 음모(陰謀)에 대한 명상》 《시지프스가 사는 법》 《소통의 문제와 이야기하기의 방식》 등을 펴냈다.

사륙전지 출력기 2대 가동!
가격, 시간, 품질, 문제 없습니다

PDF 파일출력/다국어 출력(산돌다국어, 로얄다국어)
분판필림출력(사륙전지)/대형드럼스캔/칼라복사
대형칼라 실사출력/칼라레이저출력
원색교정 흑백LP 흑백필림 CD백업 바코드파일 OHP필림 편집디자인 등

매킨토시·IBM전문 종합출력
아래아한글, 워디안, 코렐드로우, 페이지메이커, MS워드, 파워포인트, 훈민정음 등

매킨토시·IBM 자동하리꼬미 무료
아래아한글 등 IBM 분판필림 출력
다양한 최신서체 출력

태광 수식서체, 다국어서체(로얄다국어, 산돌다국어)
2002산돌퓨전서체, 다양한 최신서체 보유
(윤,국민서체,폰트뱅크,산돌,소프트매직,한양,한컴 외)

24시간 출력 (일요일, 공휴일은 사전예약제)
※「경운서체견본」 증정

Since 1989
경운출력
파일전송 http://printok.webhard.co.kr
대표전화 3236-365 팩스 3330-208